

## 지속 외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발생한 혈액복막과 췌장염 1예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, 진단방사선과학교실\*

황유식 · 정일천 · 안선영 · 이재승 · 차승환\*

**서론**: 지속 외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의 췌장염은 드물지만 중대한 합병증이다. 원인으로 는 일반적인 췌장염의 위험인자, 신부전과 연관된 인자, 복막투석과 연관된 인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. 신부전 환자에서는 cholecystokinin, glucagon 같은 위장관호르몬 의 농도가 증가하고 췌장효소의 증가를 유발하여 췌장의 형태학적, 기능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. 투석 환자에서의 췌장염의 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, 특히나 복막투석 환자에서 더 높은 발생빈 도를 보이고 있다. 혈액복막도 투석환아에서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, 투석이 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생각되어 지지는 않는다. 다만 월경, 난소낭과 연관되어 여자환아에서 더 흔히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. 본 저자들은 2년간 지속 외래 복막투석을 받던 6세 남아가 진균성 복막염으로 시 작하여 혈액복막이 발생하고, 급성 췌장염이 동반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**증례**: 6세 남아가 2일간의 발열과 복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. 환아는 2년 전에 말기신부전을 진단받 고 지속 외래 복막투석을 시행하고 있었으며, 말기신부전의 원인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뚜렷하 지 않았다. 환아는 복막염으로 진단되어 치료하던 중, 배양검사상 진균이 동정되어 복막투석 도관을 제거하고 혈액투석으로 전환하였다. 이후 환아는 범발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이 발생하였고, 혈액복막 이 동반되어 배액술을 시행하였다. 혈액복막이 지속되어 개복술을 시행하여 유착된 혈종과 띠를 제거 하였다. 출혈의 기원은 찾을 수가 없었다. 환아의 증상이 호전되던 중 환아는 다시 복통을 호소하였 고, 이때 측정된 혈청 amylase 362 U/L, lipase 1,056 U/L로 증가소견을 보였다. 금식과 췌장염에 대 한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, 복통은 점차 감소하였으며, 두 달 후에 측정된 amylase 91 U/L, lipase 96 U/L로 급성 췌장염은 회복되었으며 방사선과적 검사에서 췌장가성낭종 같은 합병증은 관찰되지 않 았다. 환아는 혈연간 신이식을 시행받았고, 현재 큰 문제 없이 치료 중에 있다.

**결론**: 혈액복막과 췌장염은 복막투석 환아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지만, 복막염 등과 동반되 어 있을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. 지속 외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환아가 급성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, 혈액복막과 췌장염도 감별 진단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.